

지체 장애인 여성의 체형 특성

이현정* · 정삼호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로, 의학의 발달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그 수가 점차 줄어들어 야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장애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 약 147만 명 중 38.6%에 해당하는 약 47만 명이 여성 장애인이고, 등록 장애인 125만 명 중 약 20만 명 정도가 지체장애인 여성이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에서 기능성은 단순히 물리적·기계적인 의미가 아니라 착용감이 좋고 입고 벗기가 쉬우며, 용변 시 편하다는 편의성과 활동성을 말한다. 기능성 의복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해소는 물론 신체의 비례나 형태가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생긴 부정적 바디이미지의 감소, 원만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인구가 증가되고,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이 요구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들은 일반 기성복을 주로 사용하고 모든 산업관련 제품 개발 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장애인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 여성의 체형 특성을 파악해 추후 기능성의복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의 지체장애인 여성의 인체를 직접 계측하였다. 2003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2개월에 걸쳐 마틴(Martin)식 인체 계측기와 줄자 등의 계측용구와 계측점 표시용 테이프, 고무 밴드 등의 보조용구를 사용하여 230명을 계측하였

다. 그 중에서 왜소증, 하지 절단자 5명은 계측치의 평균과 표준오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외하고 225명의 표본을 최종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자료의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둘레, 위팔둘레 좌우,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 등길이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넓다리둘레 좌우, 목옆젖꼭지길이, 목옆젖꼭지허리둘레선길이, 팔길이는 연구 자료가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을 10세 간격으로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분류하고 인체 계측치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성인 여성과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둘레 항목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장애유형(하반신마비, 뇌졸중, 뇌성마비, 절단)에 따라 어깨너비,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겨드랑둘레, 위팔둘레 좌우, 겨드랑앞벽사이길이, 겨드랑뒤벽사이길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지체장애인 여성의 인체 계측치는 기능성 의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장애인의복이 상품화되는 기틀이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을 위한 기능성 의복은 체형이 특이한 사람이나 노인들까지도 소비자로서 흡수하여 니치마켓을 공략하는 새로운 의미의 market share로 기대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확대해석 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